

# 지원금 액수와는 무관한 공연의 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김경애 | 무용평론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지원 철학을 채택한 서울문화재단은 지원금 사상 일개 단체에 주어지는 액수가 가장 많은 1억 원씩을 선정된 2개의 단체에 지원하였다. 소수를 선정하여 지원금 전액을 줌으로써 작품을 최고의 질로 유도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 정책은 무용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1억 원의 지원금 수혜를 받은 최대레사무용단과 정재만무용단의 공연내용을 통해 그에 따른 문제점 등을 살펴보자.

금년 서울문화재단은 기왕에 지원해온 무대제작 지원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지원 심사위원과 더불어 ‘선택과 집중’이라는 지원 철학을 채택했다. 그래서 소수를 선정해서 그들이 원하는 지원금 전액을 주고 작품을 최고의 질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많은 단체나 개인이 쪼개어 받았던 것을 소수가 다액으로 받으니 자연 떨어진 단체가 많아졌다. 지원금 혜택을 받은 단체와 떨어진 단체와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많이 벌어진 셈이다. 정책을 그렇게 정한 재단은 그 선정의 권한과 책임을 심사위원회에 일임했다. 그래서 예년에 40여 개의 단체가 선정되었던 것에 비해 금년에는 8개 단체가 뽑혔다. 게다가 작년에 비해 국고지원금이 공연예술 전반에 걸쳐 절반으로 줄었다.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단체들은 지원금 사상 일개 단체에 주어지는 액수가 가장 많은 1억 원을 받는 것으로 선정된 2개 단체에 대해 크게 주시해왔다.

## 1억 원의 지원금과 결과의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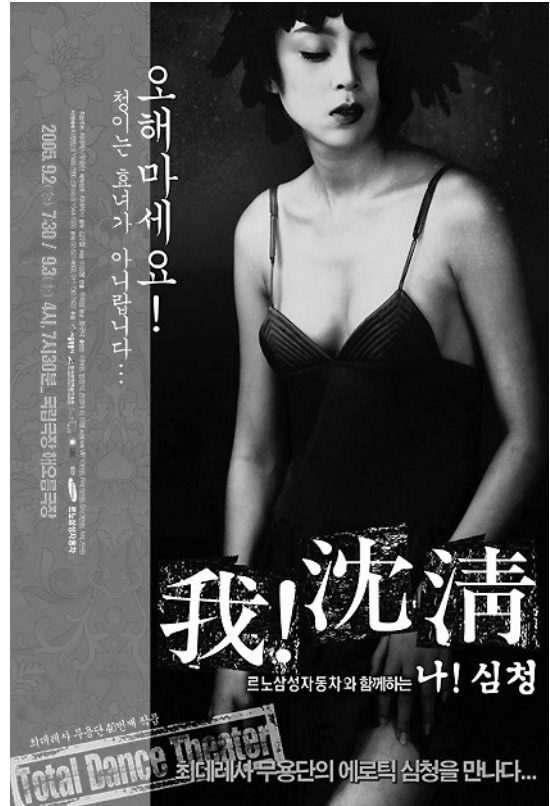
최대레사무용단과 정재만무용단이 1억 원의 지원금 수혜자로 선정이 된 것이다. 지원금 선정 후에는 각기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예술계가 부글부글 끓는다. 금년 이 서울문화재단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명분 아래 새로이 시도된 시책에 의해 떨어진 단체가 많으니 무용계가 얼마나 말이 많았을까는 가히 상상할 수 있다. 단일 작품에 1억 원이라는 초유의 지원금 액수를 놓고 이 제도가 옳은가에 대해, 또 선정된 두 단체가 과연 그만큼 지원금을 받을 만한가에 대해 양분되는 의견들로 금년 봄이 시끌시끌했다. 탈락한 단체들의 좌절감과 당혹감, 예년에는 안일한 태도로 이름만 가지고도 지원을 받았던 거에 대한 향수 등 복합적인 감정이 얽혀서 좁은 무용계를 뒤집어 놓았던 것이다.

1억 원이라는 지원금 액수가 책정이 된 것도 과거에

는 지원서류에 실제공연 비용을 대강 부풀려서 기재하고 거기에서 일정액을 뚝 잘라서 주던 관행을 없애자는 데서 나온 것이었다. 안무자가 정당하게 실제 소요비용을 기재해서 원하는 지원금 전액을 지원한다는 원칙이었다. 앞으로는 부풀려서 현실과는 맞지 않는 관행을 지원기구나 수혜 당사자들이 같이 없애자는 취지로 이 두 단체가 원하는 지원금 최고액수를 책정하게 되었다. 이 금액은 단일 작품 공연 지원 사상 최고의 지원액수를 기록했다.

경쟁하는 단체들을 제치고 이 두 단체가 1억 원의 수혜를 받게 되는 과정에는 서울문화재단의 새로운 지원 심사제도가 강력하게 작용한다. 서울문화재단은 기존의 서류위주 심사를 탈피해 작품 준비가 얼마나 되어있는가를 확인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그것이 심층 인터뷰이다. 심사위원들이 지원자를 앉혀놓고 장시간(기존 인터뷰에 비해)에 걸쳐서 작품 의도나 준비 상태, 그 가치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과거 인터뷰는 1차 심사가 끝난 후의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그래서 서류를 잘 갖추어 내면 지원이 확정되기 때문에 공연계의 인식은 지원금을 받아놓으면 그때부터 작품을 해볼까 하면서 준비에 들어가는 풍토를 이루었다. 그것을 타파해서 진정한 작품 목적을 가지고 준비해 온 사람을 골라서 지원한다는 것이 서울문화재단의 뜻이었다.

나는 이번 선정과정의 심사위원을 맡은 한 사람으로서 서울문화재단이 열정을 가지고 보다 나은 지원제도를 위해 연구하고 현장감을 있게 노력하는 자세에 동의했고 의미를 크게 부여한다. 이번엔 공연 결과를 놓고 볼 때 과거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나 새로 출범한 서울문화재단 등 지원 기구가 지원 정책이나 제도, 선정 방식, 대상자 관리들에 대해 노력하는 만큼 우리 무용계가 따라가 주질 못한다는 자책



최테레사무용단의 <나! 심청> 포스터

을 하게 되었다. 그 증거가 이번 최테레사의 공연이다. 1억 원의 수혜를 받은 두 단체 중 정재만 무용단은 작품의 질보다는 공연 사전 홍보가 미흡했다. 공익자금 최고의 액수를 지원받을 때는 공적인 의식이 있어야 한다. 지원결정을 한 서울문화재단의 입장도 감안하여 최대한 공연사실을 알리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했다. 사전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무용계 인사들은 그 공연 관람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최테레사의 공연 <나! 심청>(9월 2~3일, 국립극장해오름극장)이 끝난 후 심사위원에 참가한 몇몇은 빗발치는 무용계의 항의를 받았다. 구체적인 항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타의 정도가 강한 무용계 분위기

를 감지할 수 있었다. 최테레사의 작품은 한마디로 방향타를 잃은 그간의 최테레사 작품 가운데에서도 최악이며, 급년 공연된 무용 작품 가운데에서도 가장 질적으로 떨어지는 대열에 드는 것을 꼽을 수 있는 모습이었다. 나는 심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무용계와 서울문화재단에 죄송한 마음으로 우울했다.

### 고액의 지원금과 더불어 함몰된 예술적 능력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 최테레사가 경쟁자들을 밀어내고 선정된 것은 공연 준비가 제대로 된 자료들을 들고 인터뷰에서 완벽하리만치 왜 이 작품을 올리는가, 어떻게 작품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완벽했기 때문이다. <심침전>이라는 고전소설을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에서 현대무용으로는 대작을 현대의 의식으로 해체, 재구성하는 안무자의 뚜렷한 가치관과 방법론을 제시받을 수 있었다. 반면 1차 서류심사에서 상위급을 받은 K는 인터뷰에서 작품에 대한 구상이 전혀 되어있지 않고 늘 받아온 지원금, 이미 올려놓은 내 이름으로 받을 수 있다, 받으면 작품 구상에 들어간다는 구태적인 태도를 그대로 갖고 있어서 탈락되었던 것이다. 지원에 응한 최테레사의 작품 준비와 그 성의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왜 작품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서울문화재단의 첫 지원정책의 궤도 수정을 요구하는 무용가들의 의견을 다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게 심사위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될 정도로 무대위에 결과물이 올랐을까. 무대를 보면 최테레사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원금을 많이 받았을 때 오는 일반적인 현상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원 기구의 철학이나 시책을 수용할 수 없게 빈약한 풍토에서 아직도 공연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테레사의 고민은 1억 원의 지원금을 썼다는 증거가 무

대 위에 나타나야 한다는 데에 있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과거 일본의 에도시절 연희단체들이 돈을 많이 받으니까 할 수 없어서 무대 의상 뒷자락에 금으로 수를 놓았다는 말이 있다. 어둠속에 보이지 않은 무대 의상 뒷자락에까지 황금으로 수를 놓아 돈을 많이 썼다는 증거를 제시했다는 것. 물론 이때는 지원금 증표보다는 과시나 돈이 많으니 그런 데까지 손이 갔다는 것이 되겠지만.

최테레사의 경우도 지원금 1억 원을 소요했다는 흔적은 역력했다. 지원금이 많으니, 그 돈을 쓰기 위해서 다른 작품 세계를 끌어들이겠다는 의무감에 시달렸을 지도 모른다. 기존 자신이 추구해온 작품의 방향에서 더 밀도 있게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배짱,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풍토가 필요하다. 현대무용이란 신체를 기본으로 해서 걸음으로 드러나기에는 전혀 돈을 쓰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데, 만약 그가 무용수들만으로 작품을 해서 올렸다면 또 지원금을 다 쓰지 않았다는 비난에 휩싸였을 것이다.

그 고민 속에서 결국 작품은 방향타를 잃었다고 볼 수 있다. 작곡가 김수철, 뮤지컬 스타 이태원, 의상디자이너 이상봉 등이 참가를 했다. 그러나 무대는 한마디로 너털너털하게 퇴락한 모습이었다. 안무자는 왜 뮤지컬의 배우가 나와서 노래를 하고 영상에 왜 벗은 남자가 화면 전면으로 올라가야 하는지, 무용의 발상과 구조의 짜임에 전혀 근거가 없이 걸돌고 있는 작품이었다. 이 작품은 대극장 무대운영 능력이나 대작 안무에서 어설픈 조합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번 작품은 그동안 독립무용가로 안무력을 인정받아온 최테레사 본인에게도 무용계에게도 충격이었다. 최테레사는 어느 정도 자기 안무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작품을 가져간 것이겠지만 시간이 지나 무용계와 평론가들의 평가가 누적이 되면 그 질타에서 벗어나는

무용가들에게는 절대 자기를 지키는 내공(內攻)이 요구된다. 거액이건, 소수 지원금이건 그 액수에 자기 작품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작품 속으로 그 돈을 수렴하는 자기 정체성과 자기중심적 창작의식이 깊이 요구된다.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심층 사전 인터뷰로도 작품의 질을 보증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들의 숙제가 있다. 과연 단일 작품에 고액의 지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는가도 질문해 보아야 한다. 우리 공연 풍토에서 시루에 물붓기 식으로 지원금이 단일 작품들에 쓰이는 것에 대한 재고는 사실 지원기구 쪽에서 연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지원 수혜 당사자들이 고민을 해야 하는 단계에 있다고 본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원기구들은 나름대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받아들이는 무용계가 그동안 너무나 취약한 자금력이었기 때문에 거액의 지원금을 받으면 벼락부자 감당 못하듯이 잘해오던 예술성마저 그 지원금과 더불어 날려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곤 한다. 이번 최테레사의 경우도 그의 예술적 능력을 이 고액 지원금과 더불어 함몰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

무용가들에게는 절대 자기를 지키는 내공(內攻)이 요구된다. 거액이건, 소수 지원금이건 그 액수에 자기 작품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작품 속으로 그 돈을 수렴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요구된다. 자기 작품

원칙에서 필요한 것만 취하고 지원금이 있다고 해서 무대장치 등 작품의 방향을 헤치는 도구들을 들이지 않는 강한 작품성, 이런 자기중심적 창작의식이 깊이 요구된다. 한마디로 강한 예술가의 자의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환경변화에 대해 의식하지 않는. 지원금 1천 만 원을 받았을 때와 1억 원을 받았을 때와 예술적인 동기, 작품에 대해 갖는 태도 등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규모의 차이는 올 수 있겠지만.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없어지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출범하는 이 시기. 사실 현장의 예술가들은 이런 제도가 생기고 기구가 바뀌는 것과 무관할 수 있다. 그것이 어떤 형체가 되었든 좋은 작품, 좋은 인재들에게 지원이 되고, 특히 장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서 직업적으로 예술가들이 안정 될 수 있는 초석을 만드는 것에 힘이 모아지면 된다. 단일 작품에 대한 공연예술계의 지원금은 우리가 서구의 어느 나라 못지않게 많지만, 그들은 직업적인 기반을 갖춘 그 위에서 그 작품 지원금들이 주어진다는 엄청난 현실 차이가 있는 것이다. 화려한 꽃보다는 내실의 기하는 지원 원칙을 다시 기대한다. 🌸